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관점에서 본 오하드 나하린의 가가 움직임 언어에 관한 연구

Wang, Zhi Quan*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현상학과 가가에 대한 이해 | 참고문헌 |
| III. 메를로-퐁티의 지각 현상학을 통해 본
가가 움직임 언어 | Abstract |

I. 서론

오늘날 무용 움직임이 표현하는 형식과 훈련테크닉은 다양한 스타일과 양식을 표현해낸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현대무용은 일찍이 수많은 훈련테크닉을 쌓았다. 뒤이어 1960년대에는 포스트모던 댄스가 출현했고,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남으로써 무용의 표현방식은 더 많은 가능성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무용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전파, 수용, 흡수라는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기술과 스타일은 더 이상 무용전공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자유 무용수나 안무가들은 이미 자신의 무용전공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였기 때문에 각종 훈련 체계를 파악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훈련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계획한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무용전공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훈련 스타일을 터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떤 훈련이 이전 훈련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예술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까?’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저명한 무용단들은 가가를 자신들의 핵심 훈련방법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가는 바체바 무용단(Batsheva Dance Company)의 예술 감독 오하드 나하린(Ohad Naharin)이 개발한 움직임 언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다양한 무용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무용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 데버리 프리데스 갈릴리(Deborah Friedes Galili)¹⁾가 무용학술지 『Dance Chronicl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 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wangzhiquan@naver.com

1) Deborah Friedes Galili is an independent dancer and dance scholar based in Tel Aviv. She holds a BA in

2013년까지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가가 교육을 도입한 곳은 최소 30개국, 125개 도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가가는 세계적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의 창시자인 오하드 나하린에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체험(경험)연구에 주목하여 메를로-퐁티의 지각 현상학 방법론을 통해 가가를 탐구한다. 대다수의 현상학적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무용연구에서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때 대다수의 현상학적 연구가 방법론적 맥락에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험적 탐구에 있어서 모든 발전과정은 사상을 실체화 하는 과정 속에서 철학적 사유에 필수적인 사유의 조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를로-퐁티의 몸 지각론을 통해 가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상학이론의 실천화를 이루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가 움직임 언어에서 나타난 현상학적 방법론의 특성에 대한 탐구이다. 무용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은 이론적이나 방법론적 도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도사상으로서 무용연구에서 가지는 실용성, 교육성, 창의성, 등 다양한 잠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선행연구는 오하드 나하린과 가가에 대한 한국과 서양의 선행논문을 각각 고찰한다. 학술 정보사이트 RISS의 '상세검색'의 '전체'란 항목에서 '가가', '오하드 나하린'을 입력, 검색한 결과 6건이 조사되었다. 국내 무용학계는 주로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에 대해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문화,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나하린의 작품에 대해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²⁾ 혹은 작품 분석을 통해 후기 현대무용 일면에서 나타나는 컨템포러리적 경향에 대해 서술하기도 하였다.³⁾ 가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정은 가가의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무용콘텐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⁴⁾ 또 한 건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가가움직임 언어에 대하여 연구 분석 하였으며, 가가가 만들어진 이론배경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가가훈련법과 헬덴크라이스(feldenkrais)훈련을 비교 대조하였다.⁵⁾

해외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나하린이 개발한 가가에 대해 집중 연구하였다. Deborah Friedes Galili는 가가의 수업훈련방식, 가가의 진화, 구성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⁶⁾ Yossi Naharin은 댄스 테라피(Dance Therapy)의 관점에서 가가 움직임 언어에 존재하는 치료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⁷⁾ Diane J. Gittings은 소매틱스의 연구방법론에서 출발하여 나하린이 개발한 가가이론과 헬덴크라이스

dance history from Brown University and an MFA in dance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In 2007-2008, Deborah researched Israeli contemporary dance thanks to a Fulbright grant funded by the U. S. -Israel Educational Foundation and hosted by the Jerusalem Academy of Music and Dance (JAMD).

2) 이정연(2008),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성향 연구 : Merce Cunningham · Amagatsu Ushio · Lin Hwai Min · Ohad Naharin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차종현(2013), 오하드나하린의 작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민족성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이설아(2016), 상호문화주의 작품 성향 연구 : 린 화이민(CursiveII), 오하드 나하린(Minus7)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3) 정한결, (2016),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 데카당스(Deca Dance)에서 나타나는 컨템퍼러리적 경향 분석,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4(1), pp.203-221.

4) 김은정(2016), 가가(Gaga)의 사례를 통한 무용콘텐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한국콘텐츠학회』 16(1), pp.578-584.

5) 김은정(2016), 무용콘텐츠에 내재된 소매틱스의 뇌과학적 메커니즘, 『한국콘텐츠학회』 16(6), pp.365-373.

6) Deborah Friedes Galili(2015), Gaga: Moving beyond Technique with Ohad Naharin in the Twenty-First Century, *Dance Chronicle* 38(3), pp.360-392.

7) Yossi Naharin(2006), 'Gaga,' Ohad Naharin's Movement Language and Its Therapeutic Effect, Lesley University Master Thesis.

훈련의 유사점에 대해 설명하였다.⁸⁾ Einav Katan은 무용철학과 심령철학을 접목시켜 두 가지 관점에서 무용을 일종의 사교적 행위예술로 삼아 무용의 의의와 변화를 정의하였다.⁹⁾ Katan의 연구에서 신체는 모든 지식의 근원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현상학의 방법론을 통해 해석하였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가가 강조하는 신체의 경험이나 지식을 뜻하는 신체 경험의 재현에 대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자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메를로-퐁티의 지각론, 신체도식, 지향성적인 관점에서 각각 가가의 특징과 그의 의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지식의 방법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가언어가 이러한 지시어로서 지각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탐구하고 설명한다.

가가(Gaga)란 일종의 신체를 통해 지식(Knowledge)을 얻고 자아의식(self-awareness)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이다.¹⁰⁾ 나하린의 미학사상에 따르면 무용은 일종의 인체의 내재감각을 실현시키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¹¹⁾ 마찬가지로 신체 역시 인체의 내재감각 현실화로 나타나는 매개체이다. 즉, 가가의 주체사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운동형식은 신체적 체험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오하드 나하린이 개발한 움직임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가에서 강조하는 신체적 체험과 나하린의 움직임 철학에 대하여 분석 고찰하였으며, 여기에는 두 가지 연구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가가는 언어 지시를 통해 움직임을 이끌어서 몸의 내재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각성하여 몸을 통해 의식적 움직임을 나타낸다. 가가는 스스로의 무용훈련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특성개발을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방식을 모색하는 것과 결합시킬 수도 있다. 안무자와 무용수는 지각적, 정신적, 육체적 “조화”의 발전과 통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무용을 현상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메시지를 인지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경험이 될 수 있다. 현상학의 근본은 본질(essence)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용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그것의 질적 측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가의 훈련목적은 무용수의 습관적이던 움직임 패턴을 방지하고, 표면적인 의의를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무용수의 기존 경험, 지식, 그리고 가가언어를 통합하여 자신의 정신, 마음, 신체를 조화하고 재 정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감각적 통합(combined sensorial awareness)에 관련된 연구는 항상 소매틱스의 연구방법론에 의존하지만, 가가 움직임 언어는 현상학의 방법론을 접목시킴으로써 무용학에서 현상학적 방법론의 의미를 재규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서 실제의 움직임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8) Diane J Gittings(2013), Building Bodies With a Soft Spine Gaga: Ohad Naharin's invention in practice, its roots in Feldenkrais and the vision of a pedagogy, European Theatre Master Thesis,
 9) Einav Katan(2013), Body of Knowledge: Embodied Philosophy in Gaga, Ohad Naharin's Movement Research, Tel Aviv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0) GAGA, <<https://gaga.people.com>, 2017. 12. 1.>.
 11) Diane J Gittings(2013), Building Bodies with a Soft Spine, Gaga: Ohad Naharin's invention in practice, its roots in Feldenkrais and the vision of a pedagogy, European Theatre.

II. 현상학과 가가에 대한 이해

1. 현상학 이해

‘현상’이라는 용어는 칸트가 최초로 사용을 하였고, 현상학은 그 후 독일 철학자 에드문드 후설이 이를 구체화 함으로써 현상학의 주창자가 되었다.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과 하이데거 존재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서구 전통철학이 강조한 주체와 객체, 의식과 대상이란 이분법에 도전하면서 사물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철학의 중심적 개념은 시간, 사건, 원인, 마음, 자아, 도덕성 등의 분석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과거의 철학자들이 가정했던 것처럼 독립적인 개념적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여 은유적으로 확장되고 신체화된(embodied) 개념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¹²⁾ 우리의 상상력, 의미, 그리고 이성과 같은 정신 능력들은 모두 유기체인 우리의 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신 능력들은 우리 몸을 점차 제약시키고 있다. 이러한 몸 중심적 사고가 체험주의를 통해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세계에서 의식으로 되돌아감에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의식경험을 기술 가능하게 한다. 근대철학이 강조한 정신의 절대화를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몸의 감각으로 체험하는 세계가 참다운 세계임을 주장한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은 사유하는 정신의 주체가 아닌, 정신과 신체를 구분 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인 ‘몸-주체’로 존재한다. 즉 의식이 체화된 몸인 것이다.¹³⁾

후설은 의식이 어떻게 육화되는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면, 퐁티는 신체가 어떻게 의식적 삶을 탄생시키는가에 관심을 집중함을 알 수 있다. 즉, 의식이 신체의 기능에 끼어드는 것이 후설이라면, 신체가 의식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메를로-퐁티이다. 퐁티는 인간이 하는 사고와 반성 및 그 대상성 속에 신체가 예시되어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의 기초는 신체에 대해 반성이다. 고유한 신체는 내가 살고 체험하는 신체이다. 체험된 신체, 즉 신체 그 자신의 경험은 경험주의나 주지주의에게는 전혀 없었던 세계였다. 퐁티의 신체의 현상학은 의식의 지향성의 근원을 신체 속에서 확립한다.¹⁴⁾ 후설이 의식현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의식의 순수한 선형적 구성에 관심을 보이는 연속선상에서 후기에 생활세계를 주제로 끌어들었다면, 퐁티는 인간과 세계, 의식과 자연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퐁티는 이 주제를 근원적인 토대인 신체와 지각에서 다루고 있다.¹⁵⁾

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은 감각의 기초감각과 지성의 상부구조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퐁티는 세상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 지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론이나 단순한 합리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한계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그는 실존의 개념을 육화된 주체로서 드러내고 의식과 대상, 주관과 객관, 지성과 경험의 전통적인 구별을 편견으로 돌리면서, 의식으로도 객관적 신체로 또한 환원될 수 없는, 그렇다고 세계도 아닌 존재가 실존의 개념임을 증시했다. 의식은 육화된 의식이고 신체는 의식하는 신체이며, 인간은 육화된 정신이다. 육화된 의식

12) G. Lakoff, M. Johnson(1999), 몸의 철학, 임지랑, 윙희를, 노양진, 나익주(역)(서울: 박이정, 2002), p.9.

13) 김현정, 한석진(2017), 무용학의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이해, 『한국무용예술학회』, p.22.

14) M. 메를로-퐁티(1945),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p.705.

15) 장정운(2005), 무용하는 신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5.

은 풍티의 현상학의 기본적 진리이고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의 극복이며 관념론과 실재론의 공통 근원이다.¹⁶⁾

2. 가가 이해

나하린은 자신이 개발한 움직임 언어를 가가라고 지칭하였다. 가가의 뜻은 들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아이들이 내는 소리 같은 것이다. 의미 있는 단어를 만들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가 움직임에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가가는 움직임 언어로서 테크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가에서는 스스로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¹⁸⁾ 가가는 힐링(healing)¹⁹⁾적이고, 역동적(dynamic)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움직임의 힘에서 비롯되었다. 가가는 자신의 신체약점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며, 제대로 된 생각이나 반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각성시키고(awakens numb areas), 신체가 표현해내는 기존의 고정된 형식을 가가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가가는 의식과 무의식적 운동의 연결을 통해 본능적 운동을 향상시킨다.²⁰⁾

가가가 다른 훈련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훈련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훈련을 할 때 연습실 거울을 가리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신체 움직임의 시각적 시범보다 언어적 제시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²¹⁾ 나하린의 가가 움직임 언어는 어떠한 하나의 스텝이나 움직임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형태에 대한 하나의 개요일 뿐이다.²²⁾ 가가의 주요 원칙은 의식적인 움직임의 유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가의 목적은 움직임에 대한 하나의 틀을 제공하여 무용수 고유의 익숙한 움직임 방식을 대신하거나 탈피하며 무용수의 움직임 이전의 안배된 움직임 형식을 방지하게 한다. 가가는 신체의 체험과 내재 감각인지를 통한 체현(embodiment)을 강조한다. 즉 가가는 지시어를 통해 배치되는 의식형태를 따라서 한 발짝 더 나아감으로서 수행자의 감각을 확장하고 증폭시키는 것이다. 가가의 기본 원칙은 신체의 구현 과정을 강조하는데, 이는 물리적인 과정의 구현을 말한다. 특정과정에서 구상한 하나의 훈련방법이다.

가가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가가 무용수 클래스(Gaga dancers classes)’으로, 주로 전문 무용가와 무용 전공자들이 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가 일반인 클래스(Gaga people classes)’로 자신의 운동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가가의 모든 과정은 가가 무용수클래스든 가가 일반인클래스든 선생님과 참여자가 모두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업시간 동안 멈추지 않기를 요구한다. 수업 중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몸에 맞는 조언을 경청하게 격려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임강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움직임을 멈추고 바라만 보는 것은 불가하다.

16) 앞의 책, p.705.

17) Heymann, T.(2007), *Out of Focus*, DVD, USA, Israel: Heyman Brothers Films.

18) Hiie Saumaa(2015), Ohad Naharin's Sensual, Somatic Gaga, *Dance Chronicle* 40(3), p.406.

19) healing: 몸이나 마음의 치유다.

20) GAGA, <<https://gaga people. com>, 2017, 12, 1.>.

21) Diane J Gittings(2013), *Building Bodies with a Soft Spine*, Gaga: Ohad Naharin's invention in practice, its roots in Feldenkrais and the vision of a pedagogy, *European Theatre*.

22) Deborah Friedes Galili(2015), Gaga: Moving beyond Technique with Ohad Naharin in the Twenty-First Century, *Dance Chronicle* 38(3), p.375.

가가 수행과정은 가가 전용어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임의 이 끌어낸다. 가가는 외적으로 구두언어 지시 자기인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가가의 주요 원칙은 의식적인 움직임의 유도이다. 따라서 가가 수행과정은 움직임 탐구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가가 언어는 하나의 상태를 기술하는 데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가가 단어가 묘사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이며, 가가 언어는 수행자에게 하나의 창조적인 틀을 제공할 뿐이다. 특히 수행자가 획득한 지시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의 특정한 동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나하린이 동작의 질량(質量)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가 전용 언어는 일종의 신조어다. Gaga언어의 구성 중 일부분의 영감은 나하린의 주변 사람이며, 일어 단어의 연상도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lena, Biba, Pika, Dolfi, Ashi, and Tashi가 있으며, “Gina”는 Gina Buntz를 칭찬하는 뜻, Dolfi는 나하린의 정원사, Lena는 무단 레퍼토리의 지도 감독, Bida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Ashi”, “Tashi”, “Tama”, “Kanta”, “Yoyo” 등의 단어는 일어 단어의 연상을 통해 변형한 것이다.²³⁾

〈표 1〉 가가 전용어 어원

어 원	신조어(Invented words)
연결어(이름에 관한)	“lena,” “Biba,” “Pika,” “Dolfi,” “Ashi,” “Tashi”
연상언어(일본어에 관련)	“Ashi,” “Tashi,” “Tama,” “Kanta,” “Yoyo”

나하린 스스로 lena를 우리의 배꼽과 사타구니(groin)부분에 하나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lena의 오리지널은 마사 그레이엄의 테크닉 훈련과 관찰에서부터 발견한 주요한 요소이다. 그는 신체의 움직임이 하나의 구심 방향으로 발전하며 에너지는 중심을 통해 전달되어 올 수 있고, 신체의 중심부분을 통해 에너지를 사지로 전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동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나하린은 Bida를 연상이나 확장된 상태로 해석한다. 그는“당신의 무릎, 당신의 어깨, 당신의 늑골, 당신의 머리 등 부위가 확장되어 당신의 좌골(seat)을 벗어난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이는 신체의 공간을 더욱 넓게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Tashi는 발을 바닥에 놓고 발목의 움직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나하린은 Tashi에 대하여 몸 전체의 중심을 발뒤꿈치에 두고 발목을 위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하린은 가가의 모든 지시에는 서로 다른 근육의 사용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절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III.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본 가가 움직임 언어

1. 지각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가가

퐁티가 말하는 지각은 몸이 중심이 되는 형태 지각이다.²⁴⁾ 지각(perception)은 흔히 외계에 대한 교

23) Deborah Friedes Galili(2015), p.371.

섭 또는 열림이라고 규정된다. 지각은 감각적 내용에 의지해서 대상을 나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감각적 차원을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외계의 물성이 나에게 주어진다.²⁵⁾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가가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가가언어는 외계의 물성을 볼 수 있고 무용수에게는 움직임의 틀이 주어진다. 가가에서는 개념의 지시(instruction) 방법에 근거하는 것이다. 가가는 외계 지시 언어의 제시로써 무용수의 몸 안에 내재된 감정이나 내적으로 상상한 에너지 형태를 신체를 통해 구현해낸다. 즉, 가가는 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지시와 내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상호 결합이다.

가가는 외부지시어와 자기인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가가 언어는 개념형식으로서 행동에 대해 움직임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개념은 본질적으로 지각(perception)과 행동(action)에 근거한다. 정신적 과정은 환경과 신체적 상호 작용의 관계에서 기반으로 한다. 즉 정신은 고유한 체현(inherently embodied)이다. 몸은 인지과정에서 나타나고 신체적 상호 작용인 인식과 행동의 기초에서 정신에 대해 지지하는 과정이다. 개념은 지각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²⁶⁾ 퐁티는 최초의 저작인 『행동의 구조』는 체험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분석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퐁티는 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형식의 개념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⁷⁾ 형식(morphe)은 구체적 체험의 실질적 성분으로서 감각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향적 체험을 가리킨다.²⁸⁾ 즉, 형식은 물리적 실재가 아니라 의식의 대상인 것이다. 지각이 단순한 감성의 기초감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성의 상부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가 언어는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를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개념지시어의 형식으로서 무용수가 자신의 신체의를 발견하고 강화시키는 틀을 제공하였다. 퐁티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가가를 살펴보면, 가가 움직임 언어는 의식적인 움직임 유도원칙 언어로서 몸을 통해 체험되는 경험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으며, 동시에 신체의 감각인지와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퐁티에 있어서 지각은 체화된 의식(embodied consciousness)이다. 보이지 않는 신체의 내부는 지각의 경험을 통해서 보이게 된다.²⁹⁾ 마찬가지로 가가언어는 몸의 내재된 경험을 연결된 매개체로 삼아 신체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가언어를 통해 각성하여 몸의 의식적인 움직임을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가가에서 강조하는 신체지각과 신체체험의 재현이다.

가가는 자신의 신체의를 발견하는 틀을 제공하고 의식과 무의식적 움직임의 연결을 통해 본능적 운동인 원초적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³⁰⁾ 퐁티는 반사행동에 대해서 흔히 자극과 반응의 상호작용이라는 차원에서만 다루이지는 원초적 활동으로 여겨왔다.³¹⁾ 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 할 때에도 신체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외부요소들의 자극에 의한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가 움직임 언어는 수행자에 대해 외부 자극 요소로 삼고 움직임을 이끌어내어 신체의 내재 감각과 움직임을 서로 통합하였다.

24) 이진이, 문영(2016), '체화된 인지' 개념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경험과 공감 연구, 『대한무용학회』 74(4), p.139.

25) M. 메를로-퐁티(1945), p.693.

26) Sabine C. Koch, Thomas Fuchs, Michela Summa, Cornelia M Iler(2012), Body emory, Metaphor and Movemen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121-122.

27) 김말복(1993), 현상학적 무용해석의 과제, 『한국문화연구원논집』 62(1), p.169.

28) M. 메를로-퐁티(1945), p.694.

29) 장정운(2005), 무용하는 신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8.

30) GAGA, <<https://gaga.people.com>, 2017, 12, 1.>.

31) 김말복(1993), p.170.

2. 신체도식의 개념에서 살펴본 가가

신체도식(Body schema)이라는 것은 심리학(psychology), 신경과학(neuroscience), 철학(philosophy), 스포츠 의학(sports medicine), 그리고 로봇 공학(robotics)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³²⁾ 철학 분야에서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신체도식은 나의 신체가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결집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종합적인 내적 지각을 의미한다. 즉, 신체도식은 나의 신체가 세계를 향해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³³⁾ 퐁티가 말하는 신체 도식은 단순히 존재하는 신체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체의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퐁티가 정의하는 신체 도식은 감각 상호 간에 조직된 나의 감각들로 체험하고 나 자신을 이러한 감각들이 통합되어 있는 신체 주체로 느낀다.³⁴⁾

가가훈련을 받은 무용수들은 인터뷰에서 가가훈련에 대한 소감을 탐구(exploration), 실험(experimentation), 발견(discovery), 연구(research)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하였다. 예를 들면 Shomroni는 인터뷰에서 나하린의 가가 훈련에 대해 일종의 움직임의 다양성 탐구로 훈련의 근본이라고 평가했다. 가가에 대한 Avraham의 인터뷰에서는 텍스처(textures: 감각상에서나 움직임상에서나)와 스피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고 하였다. 이는 Avraham이 오랜 세월 동안 학습한 가가의 수업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thick과 soft의 신체 운동감각에 대한 탐구에 전념하는 것이다.³⁵⁾ 가가의 수업은 음성지시로 진행된다. 가가는 현재의 반응을 강조하며 진행하고 있는 일을 연결하는 것이다. 가가를 수행할 때 무용수는 자신이 받는 지시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움직임 형태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은 신체의 습관성 의식반응에서 비롯된 자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따라서 움직임 습관성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것이다. 신체도식에 따라 움직임규칙은 운동 감각 기능의 반응이다. 운동 감각 기능의 반응은 습관적인 움직임의 방식이며 절차 기억(procedural memory)처럼 몸의 근육과 신체도식에 보존하였다.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몸이 추출하는 경험과 지식을 움직임으로 전환하여 나타낸다. 그러므로 가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식과 감각의 중요성이며, 움직임과 감각기관의 연결에 대한 중요성과 운동감각의 발견이다.

가가는 육체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신체적 감각기관에 대한 이해에 의해 스스로의 익숙한 움직임 방식을 탈피하거나 대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가는 지시어를 통해서 수행자의 몸이 본래의 고유한 경험이나 지식을 각성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창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움직임의 창출은 습관적인 절차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퐁티의 신체도식의 관점에 따라 기존의 신체도식이 없다면 새로운 형태의 구조화나 습관은 불가능할 것이다. 동작의 구조는 신체의 구조화로 그리고 신체의 구조화는 신체 도식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구조와 습관의 획득은 신체도식의 개조, 즉 변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³⁶⁾ 퐁티의 관점에 따라 신체 도식의 개정과 갱신으로서의 습관 획득은 종합을 언제나 지적 종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요소적인 운동들, 반응들 자극들을 습관 안에서 결합하는 것이 외적 연

32) Body-Schema, <https://en.wikipedia.org/wiki/Body_schema, 2018. 1. 11.>.

33) M. 메를로-퐁티(1945), p.169.

34) 이소희(2011), 신체 이미지와 거식증 : 메를로-퐁티의 신체의 현상학과 라캉의 정신 분석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5(3), p.123.

35) Deborah Friedes Galili(2015), p.369 참조.

36) 장정운(2005), 무용하는 신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5.

합이다.³⁷⁾ 따라서 이것은 바로 가가 언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가가의 훈련은 외재적인 메시지를 통해 움직임을 유도하여 육체적 감각의 발견에 대해 집중하였다. 즉, 몸 자체에서 원래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상학에서는 자기 인식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동일하다. 폰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신체=의식’이란 등식을 성립시키고 체화된 의식을 현상학적으로 보려고 하였다.³⁸⁾ 즉, 메를로-퐁티에 있어 정신이나 의식은 반성적으로 발동되기 이전에 이미 몸에서 이루어지는 체화된 정신이나 의식이 된다. 그러므로 신체도식에 있어서 새로운 구조화와 새로운 습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가는 신체적 체험(경험)을 강조하는 한편 무용수 고유의 익숙한 움직임을 방지하기도 하여 이러한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가의 이러한 갈등은 신체도식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바로 해석할 수 있다. 폰티의 관점에 따르면, 몸은 고유한 경험이 없다면 새로운 형태를 창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신체도식의 관점에서 몸의 경험이나 습관은 다른 실체로 전환할 때 자동적이거나 반복적인 습관성의 의식반응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신체의 습관성은 무의식적인 표상이 아니다. 외재적 요소의 자극과 반사에 따라 몸 안의 고유한 경험과 지식은 본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형식을 나타낼 수 있다.

3. 지향성에서 살펴본 가가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에는 모두 의식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움직임을 할 때 항상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대부분의 동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하는 동작 혹은 물을 마시는 동작들은 분명히 의도 있는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중에서 습관적인 행위가 있지만 실은 내재의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미 습관적인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지 않는데 무의식적 움직임이 아니다. 대부분 움직임의 뒤에 어떤 의미이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떨어지는 물건을 잡을 때 항상 가장 빠른 속도인, 가장 경제적인 효율성을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표면적인 본능 반응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내재의 지향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때 행동의 지향성은 떨어지는 물건을 잡기 위해 나오는 움직임이다. 이는 자발적인 반응을 통한 움직임이 아닌 지향성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움직임에서 구현된 경험과 지식은 모든 인간이 지향성을 통해 신체의식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실 지향성은 후설의 저작 ‘논리연구(1900-1901)’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후설은 의식에 대하여 세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경험적 자아의 체험의 총체를 뜻하며, 이는 지향적 체험과 비지향적 체험으로 나누어진다. 둘째는 자신의 심리적 체험에 관한 내적인 지각 또는 내적 의식, 즉 체험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의미한다. 셋째는 모든 종류의 심리적 작용, 자아가 의식 속에서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³⁹⁾ 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지향성은 후설의 개념기초를 넘어서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확장된다. 폰티는 의식의 지향성을 실천적인 방식의 지향성으로 보기 때문에, 지향성은 몸의 표현(움직임)과 연결된다. 우리의 몸은 운동 신경적인 혹은 지각적인 능력의 체계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을 할 수 있다’이다.⁴⁰⁾

37) M. 메를로-퐁티(1945), p.227.

38) 장정운(2005), p.45.

39) Intentionalit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920&cid=41799&categoryId=41800>, 2017. 11. 10.>.

가가는 몸의 외재 형태를 강조하지 않아서 움직임 내재의 질(quality)과 내재의 감각의 발견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폰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운동의 질에 대한 설명하였다. 운동의 질은 운동 그 자체와 외적으로 연결된 표상이 아니고 운동에 내재적이며 순간순간 운동을 고무하고 지탱한다.⁴¹⁾ 쉽게 설명하면 운동의 지향성은 외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움직임의 과정으로 향한다. 마찬가지로 가가에서는 외재적인 지시어의 표명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내재적인 감각에 대한 유도의 과정을 볼 수 있다. 가가는 감정의 발견(discovery of feelings)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가가언어는 몸의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이다.

가가는 지시어 같은 역할을 수행자에게 전달하는 언어로 된 메시지이다. 수행자가 가가언어 지시에 따라 몸을 통해 실제의 움직임으로 전환하였다. 가가용어는 발레용어와 다르다. 가가는 움직임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상태를 개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가는 움직임 언어로서 테크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가는 하나의 프롭프트가 다른 하나의 프롭프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가가언어가 묘사하는 것은 일종의 이미지이며, 수행자에게 하나의 창조적인 틀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가가는 단순히 이미지를 통해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몸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을 구도언어의 자극하고 각성을 통해 새로운 형식 움직임으로 전환한다.

폰티가 신체의 특성들을 가장 의미 있게 열거하고 있는 논문에서 보면, 신체는 “종합을 이루는 주체”이고, “자신의 지식과 운동을 통해 어떤 목표를 향하는 목적 지향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부분들이 갖는 힘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또한 “자신의 부분들을 대상에 대한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열”하며,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주위에 어떤 ‘환경’을 투사”하여, 마지막으로 “신체가 갖는 지식은 잠재적인 지식”이다.⁴²⁾ 가가언어는 신체의 외재 움직임과 내재 감각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어 단순히 지시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내재 자극 및 외재의 투사요소가 될 수 있다. 가가훈련에서는 거울의 사용금지에 따라 무용수가 새로운 참조 체계를 찾아야 한다. 가가언어는 무용수가 움직임을 참조할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 가가는 지시의 메시지에 따라 외재 환경 및 신체 내재 공간을 투사하여 상상과 연관된 언어의 암시를 통해 스스로의 감각에 따라 신체가 공간에서 지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체내적인 감각은 집중할 때 뼈와 근육의 사이에 내재된 관계를 인지할 수 있고, 자신의 다차원적인 움직임도 인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가언어는 몸의 내재된 경험을 연결된 매개체로 삼아 신체의 경험이나 인지를 가가용어를 통해 각성하여 신체의 의식적인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폰티의 운동은 추상적 운동과 구체적인 운동의 구별을 지향한다. 구체적 운동은 존재 또는 현실적인 것에서 일어나고 추상적 운동은 기능적인 것 또는 비존재에서 일어난다. 즉, 추상적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상적 기능은 투사의 가능하다.⁴³⁾ 따라서 구체적 운동은 원래 몸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볼 수 있고 추상운동은 고유한 경험 및 새로운 존재 형식에 대해 각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가가용어는 구체적인 운동 메시지일 때도 있고, 추상적인 운동 이미지 일 때도 있다. 폰티의 관점에 따라 추상적 운

40) M. 메를로-폰티(1945), p.220(이 용어는 후설의 미출간 원고에서 상용된다).

41) 앞의 책, p.183.

42) 장정운(1993), p.12.

43) 앞의 책, p.185.

동 혹은 추상적 이미지는 바로 지금 현존하는 내 몸의 실제적인 경험에 대해 도모할 수 있는 자극요소와 신체 지각적 정보인 디렉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폰티의 관점에서 가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추상적인 이미지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시함에 따라 움직임 표현방식은 더 다양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가가 움직임 언어에서 추상적인 지시와 구체적인 지시는 같이 겹쳐서 사용하여 새로운 움직임의 패턴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가가 움직임 언어는 무용수의 신체경험을 각성하고 내재감각과 움직임을 함께하여 심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조율(attunement)이다.

결론적으로 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지향성의 이론에 따르면 신체는 인지와 학습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신체는 본질에서 창출한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가 움직임언어는 무용수의 신체에 내재된 움직임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가언어는 폰티의 지향성이론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가가언어가 지니고 있는 그 내재적인 의의를 더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메를로-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나타난 지각론, 신체도식, 지향성의 개념을 통해 가가의 특성, 역할, 의의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탐구하였다. 또한 가가에서 존재한 갈등에 대하여 폰티의 신체도식의 개념을 통해 해석하였다. 가가에서 경험은 늘 새로운 형식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이다. 따라서 신체의 경험이나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는 현상학의 방법론 더 적합한 것이 당연하다. 본문에서는 현상학적 방법론에서 출발하여 가가를 탐구하는 동시에, 신체적 경험과 본질에 대한 연구가 무용 움직임에서 존재하는 의의를 재규명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가가가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로 가가 수행자들이 움직임 과정에서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형식이다. 무용수의 지각적과정이 가져오는 표현의 형식과 표현의 질은 그들의 수행 방식에 달려있다. 가가언어의 물리적 전환의 실현과정은 형식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지는 행동을 근간으로 한다. 개념은 지각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지향성은 의식의 근본 구조이다. 폰티의 관점에 따라 형식은 의식의 대상인 것이고 지각은 체화된 의식이다.

몸은 삶을 통해 체험되는 의미들의 조화로운 통일성이다. 폰티는 신체와 정신을 합한 몸을 통해 일원론적으로 지각을 설명하고 있다. 무용은 본질적으로 몸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이다. 몸을 통해 사유하고 표현하고 지각하는 인간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자아의 신체로부터 독립적인 실체되었다. 가가는 몸의 내재적 감정발견을 강조하면서 수행자의 기존 경험, 지식, 그리고 가가언어를 통합하여 자신의 정신, 마음, 신체를 조화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게 한다. 가가의 움직임 형식은 몸의 경험과 지식에 뿌리를 두어야한다. 즉, 가가는 무용의 경험을 일종의 새로운 모델로 변화시켰다.

메를로-폰티의 관점에서 의거하면 인류의 경험은 자신의 신체에서 스스로 발굴해 낼 수 있다.⁴⁴⁾ 특히 폰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인간의 사고나 인지를 ‘몸’을 중심으로 한 지각이나 경험으로 돌려놓아야

44) M. 메를로-폰티(1945), p.705.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몸에 의한 지식이 근원적이고 전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가에서는 신체 경험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의 생기의 근원으로 본다. 그러므로 가가 움직임은 신체의 체험과 내재 감각 인지를 통한 체현(embodiment)을 강조한다.

가가는 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 형식을 기르는 방법이다. 따라서 무용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메를로-퐁티의 지각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가가 움직임 언어의 의의와 역할을 해명하고, 무용연구에 있어서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적 측면, 새로운 움직임 차원에 대한 창의성 및 안무의 탐구측면에서 가진 잠재적 의미를 볼 수 있다. 또한 현상학의 방법으로서 가가를 살펴보면 현상학은 단순히 방법론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가가의 탐구에서 관념론과 실재론의 공존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45) 이진이, 문영(2016), p.138.

■ 참고문헌

- 메를로-퐁티, 모리스(1945).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 레이코프, G.(2002). 『몸의 철학』. 임지랑, 윙희를, 노양진, 나익주(역). 서울: 박이정.
- Sabine C. Koch, Thomas Fuchs, Michela Summa(2012). *Body Memory, Metaphor and Movement*. Amsterdam: John Benjamins.
- 장정윤(2005). 무용하는 신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연(2008).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문화적 성향 연구 : Merce Cunningham · Amagatsu Ushio · Lin Hwai Min · Ohad Naharin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이설아(2016). 상호문화주의 작품 성향 연구 : 린 화이민<Cursive II>, 오하드 나하린<Minus7>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Diane J Gittings(2013). *Building Bodies with a Soft Spine. Gaga: Ohad Naharin's invention in practice, its roots in Feldenkrais and the vision of a pedagogy. European Theatre. Dissertation Project for a Master of Arts Degree.*
- Einav Katan(2013). *Body of Knowledge: Embodied Philosophy in Gaga, Ohad Naharin's Movement Research. Tel Aviv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Yossi Naharin(2006). 'Gaga,' Ohad Naharin's Movement Language and Its Therapeutic Effect. Lesley University Master Thesis.
- 김말복(1993). 현상학적 무용해석의 과제. 『한국문화연구원논집』, 62(1): 163-188.
- 김현정, 한석진(2017). 무용학의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이해. 『한국무용예술학회』, 63(1): 19-34.
- 이소희(2011). 신체 이미지와 거식증 : 메를로-퐁티의 신체의 현상학과 라캉의 정신 분석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5(2): 117-149.
- 이진이, 문영(2016). '체화된 인지' 개념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경험과 공감 연구. 『대한무용학회』, 74(4): 137-151.
- 최재식(2009). 신체개념을 통한 메를로 - 퐁티 현상학과 후설 현상학 연구: 신체 (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현상학회』, 40: 1-33.
- Deborah Friedes Galili(2015). Gaga: Moving beyond Technique with Ohad Naharin in the Twenty-First Century. *Dance Chronicle*, 38(3): 360-392.
- Hiie Saumaa(2015). Ohad Naharin's Sensual, Somatic Gaga. *Dance Chronicle*, 40(3): 406-409.
- Body-schema. <https://en.wikipedia.org/wiki/Body_schema, 2018. 1. 11.>.
- GAGA. <<https://gagapeople.com>, 2017. 12. 1.>.
- Intentionalit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920&cid=41799&categoryId=41800>. 2017. 11. 10.>.
- Heymann, T.(2007). *Out of Focus. DVD. USA, Israel: Heyman Brothers Films.*

논문투고일 2018. 2. 12

심사일 2018. 2. 20

심사완료일 2018. 3. 29

A Study on Ohad Naharin's Movement Language Gaga from the Perspective of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Perception

Wang, Zhi Quan

Ph. D Candidate of 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research applies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perception in order to study the dance language Gaga developed by Ohad Naharin. Gaga is the main training method of Batsheva Dance Company. It helps the dancers develop and advance their movements' precision and sensibility. In Gaga, dance experience is always innovative. For exploring the experience and essence of the body, phenomenology is undoubtedly the most appropriate research method. Through the perception, intentionality and body schema of Merleau-Ponty,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and training objectives of Gaga. In addition, the contradiction points existed in Gaga have been also explained by the conception of phenomenology belonging to Merleau-Ponty. It proves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e methodology of phenomenology in the study of dance as well as the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practical process of dance.

Keywords: Gaga(가가), Phenomenology(현상학), Perception(지각), Body schema(신체도식), Intentionality(지향성)